



## KIA 日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 타격감 찾기 '하루가 짧다'

## 골프 공 크기 특수볼로 배팅훈련 심야까지 숙소 인근서 스윙연습

“미야자키의 하루가 너무 짧다.”

30일 오전 7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묵고 있는 미야자키 베르포트호텔 객실의 불이 일제히 켜졌다.

일교차가 심한 탓에 새벽공기는 다소 쌀쌀했지만,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선수단은 아마시타 체력 트레이닝 코치의 지휘로 호텔 주변에서 가볍게 몸을 풀며 하루훈련을 준비했다.

몸풀기를 끝낸 선수단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전날 '특별 타격조'로 분류된 김주형과 김연호, 이호진, 김원섭 등이 선발조로 10여분 거리에 오쿠라가하마 구장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선수단은 9시 30분에 훈련에 합류했다.

이날 타자들은 박승호 수석 코치와 이견택 타격코치의 지시에 따라 프리배팅으로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데 구슬땀을

쏟았다.

이종범과 심재학, 조경환 등 고참급들은 야구공 대신 골프공 크기만한 플라스틱 공으로 타격감을 찾는 배팅훈련에 몰두했다. 이어 시작된 내야수비 훈련에선 각 포지션마다 두 명씩 짝을 이뤄 홈 송구와 더블아웃 플레이 등 다양한 전술, 전략을 몸에 익혔다.

1루에는 장성호와 이재주, 2루에는 김중국과 손지환, 3루에는 홍세환과 김주형이 배치돼 각 포지션별 경쟁구도를 예고했다.

신인 이호진과 함께 유격수 연습을 하고 있는 이현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잦은 수비실책을 보여 백인호 수비 코치로부터 따끔한 충고를 듣기도 했다.

같은 시간, 투수들은 연습장 뒷편에 마련된 실내 연습장에서 실전에서 쏟는

힘의 70% 정도로 30~50개씩의 공을 뿌려냈다.

불이 높게 뜬다는 지적을 받은 윤석민은 낮게 깔리는 제구력 훈련에 집중했고, 김진우는 파워넘치는 피칭으로 김봉근 투수코치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

한 견에선 올 시즌 마무리로 낙점된 한기주가 '심무기'인 체인지업 등을 연마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친 1시부터 시작된 오후 훈련에선 타자들은 4조로 나눠 배팅 훈련과 전락 훈련을 병행했고, 투수들은 웨이트와 러닝 등으로 기초체력을 다졌다.

오후 4시, 30분 요가로 하루훈련을 마감한 선수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향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야간 자율훈련에 돌입했다. 치열한 포지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시계 바늘이 9시를 지날 무렵, 김진우와 한기주, 신동운, 전병두, 정원 등 투수진은 호텔 9층 연회장에서 웨도우 피칭으로, 이종범과 이재주 등 타자들은 웨이트와 타격훈련으로 늦은 하루일정을 마감했다. /lucky@kwangju.co.kr



“더 구부러 봐요”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캠프가 한창인 KIA선수단이 30일 오후 하루 훈련을 마감한 뒤 요가로 지친 몸을 풀고 있다.

# “서튼·에서튼, 너희들 사귀니?”

## 여기는 미야자키

“너희들 사귀니?”, “아냐, 우린 서튼 패밀리야!”

일본 미야자키 KIA 스프링캠프에서 용병 래리 서튼(34)과 에서튼(31)의 도(?)를 넘어선 친밀도가 연일 선수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두 용병은 스프링 캠프 합류 이후 ‘밥도 같이, 산책도 같이, 훈련도 같이’ 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KIA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용병들을 겪었지만, 이처럼 친한 용병들은 처음 본다”면서 “서튼은 야구고 에서튼은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이보다 더 좋은 친밀함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

같은 미국인 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에서튼이 호랑이 유니폼을 입게된 게 서튼의 추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당시 스카우트를 담당했던 조찬관 전력분석장은 “여러 용병들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는데, 서튼이 미국에서 선

## 식사·산책·훈련 함께 다녀 연일 선수단 입방아에 올라 서감독 “좋은 팀웍” 기대

수시절 눈여겨 봤던 에서튼을 적극 추천했다”며 “이후 에서튼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야구에 적합한 선수로 판단돼 스카우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튼과 에서튼의 친밀함은 KIA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 서정환 감독을 미소짓게 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같이 지내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서튼이 에서튼에게 한국야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에서튼이 한국야구에 적응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면서 타국 생활에 대한 항수를 덜어내고 있어 연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서정환 KIA 감독은 “서튼은 현대에서 훈련량이 오를 정도로 검증된 선수고, 에서튼은 볼 스피드는 빠르지 않지만 제구력이 일품”이라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야구에만 전념할 수 있다며 이보다 더 좋은 팀웍이 어디있겠냐”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lucky@kwangju.co.kr



하늘을 나는 스노보드

30일 지린에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스노보드 경기에서 일본의 고쿠보 가즈히로가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한국 2위 수성 오늘이 고비

## 쇼트트랙 남녀 1,000m·계주 금 4개 걸러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텃밭’인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31일에 마무리되면서 종합 2위 수성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맞게 됐다.

쇼트트랙은 지난 29일 치른 남녀 1,500m 결승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건져 올리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금빛 기대’를 모았던 안현수(한국체대)가 자신의 주종목인 1,500m에서 은메달에 머물러 전종목 석권의 꿈이 날아간 것과, 메달을 기대했던 이호진(경희대)마저 레이스 도중 넘어지는 불상사를 당했다.

남자 쇼트트랙은 전력상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무더기 금메달이 기대됐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만 것.

대신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19살 동갑내기’ 정은주(한국체대 입학예정)와 진선유(단국대 입학예정)가 금·은메달을 합작해 한국 선수단에 위안을 줬다.

남자 쇼트트랙은 31일 1,000m와 남녀 계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경기 일정을 마친다. 쇼트트랙은 지난 2003년 아오모리 대회 때 금메달 6개를 따내 종합 2위 달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이번 대회 첫날 금메달 1개만 얻는 수확에 머물러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31일(한국시간) 남녀 1,000m와 계주를 합쳐 총 4개의 메달이 걸려있는 쇼트트랙의 결과에 따라 한국 선수단의 종합 2위 수성 목표달성의 운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남자 1,000m에는 안현수, 김현곤(강릉시청), 김병준(경희대 입학예정) 3명이 나선다. 안현수는 지난 2003년 아오모리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안현수로서는 1,500m에서 대회 2연패 실패했던 터라 1,000m에 남다른 각오로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회 직전부터 심한 감기와 고생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게 여전한 변수로 남아있다.

여자부에서는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던 정은주를 비롯해 진선유, 변천사 등 지난 29일 1,500m에 나선 선수들이 그대로 출전한다.

또 남자 계주는 지난해 치른 4차례 월드컵 시리즈에서 3번이나 우승을 달성했을 만큼 ‘최강 호흡’을 자랑하고 있어 금메달이 유력하지만, 여자 계주는 1차례 우승에 그쳐 금메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편 스피드스케이팅은 지난 2003년 아오모리 대회 2관왕(1,000m, 1,500m)에 올랐던 이규혁(서울시청)이 자신의 주종목인 1,500m에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



# “휴식 끝”

## 최경주 2일 FBR오픈 출전...시즌 첫 우승 노려

2007년 시즌을 2연속 ‘톱 10’으로 힘차게 열어젖힌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시진)가 필드에 복귀한다.

짧은 열흘 휴가를 마친 최경주는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에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TPC 스타디움코스(파71·7천216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FBR오픈에 출전한다.

메트세데스-벤츠챔피언십 공동 8위에 이어 소니오픈 공동 4위에 올라 스윙 교정의 효과를 톡톡히 본 최경주는 내친 김에 이번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올해 2개 대회에서 최경주는 그린 적중률 77.78%의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전체 PGA 투어 선수 가운데 4위에 올라 있고 선수의 기량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평균타수

부문에서도 8위(69.56타)를 달리고 있다.

지난 2005년 미켈슨과 우승 경쟁을 벌이다 2위를 차지했던 나상욱(23·코오롱)과 뷰익인비테이션에서 공동 9위에 올라 사기가 오른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도 상위권 입상을 노리고 출사표를 냈다. 기대보다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루키’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도 출전해 모처럼 ‘코리아 브라더스’ 4인방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7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타이거 우즈(미국)가 중동 원정에 나선다. 우즈는 2월1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에미리트골프장(파72·7천301야드)에서 개막하는 유럽프로골프투어 두바이데저트클래식에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여자프로골퍼 13명 1일 LET 호주오픈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 정상급 선수들이 2007년 시즌을 앞두고 호주에서 모의고사를 치른다.

작년에 한국여자프로골프에 새내기로 데뷔해 삼금함과 다승왕, 신인왕 등 상이러는 상은 모조리 휩쓴 신지애(19·하이마트)와 ‘베스트 스윙’의 박희영(20·이수건설), ‘열풍’ 최나연(20·SK텔레콤), 안선주(20·하이마트), 그리고 ‘베스트 드레서’ 홍란(21·이수건설)과 ‘효녀 골퍼’ 김소희(25·빈폴골프) 등 간판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또 작년 호주에서 열린 LTE 투어 ANZ레 이디스마스터스에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해 캐리 웹(호주)을 밀쳐잡고 따돌리고 우승한 뒤 LET 사상 최연소 회원이 된 호주교포 안희영(18·삼성전자)도 출사표를 던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